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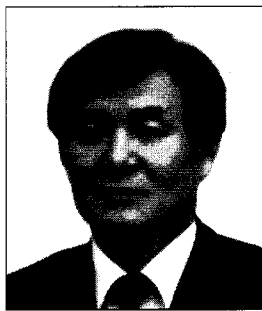
농업자재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자재산업은 새로운 농업자재의 개발공급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투자는 물론 경영합리화를 꾀해 수출산업으로 성장발전해야 한다.

1. UR타결과 농업여건의 변화

그동안 7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에 드디어 타결이 되고 농산물 협정의 문안이 확정되었다. UR협상의 주요 타결내용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일정과 조건의 확정,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예외없는 관세화 및 국내농업보조 감축기준의 확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UR협상의 타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일정과 조건이 확정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한국농업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 파급효과로 우리농업은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 위축과 탈농의 가속화로 농촌활력의 저하, 유희농지의 증가 등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UR체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보면, 수입자유화시 총 GNP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1992년 7.8%에서 2001년에는 2.8%로 격감되고 농림수산업 취업자와 농가인구의 비중은 같은기간 16%, 13.1%에서 7.9%, 5.1%로 각각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농산



강 정 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물수입 증가에 따른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는 1992년 42.6억 불에서 2001년 13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 내지 정체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입개방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데 개방폭이 큰 곡물,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등은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며 개방폭이 작은 쌀과 관세상당치(TE)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닭고기, 양념채소류의 가격은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0개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도 수입개방에 의해 1992년 83~104% 수준에서 2000년에 41~99%수준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있

다. 15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자 잉여도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995~2001년 기간중 총 7.8조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우리농업이 국제화 과정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의 수립과 방향제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농업구조의 개선, 농어촌 개발 및 농어민 복지증진 대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농자재업계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여건의 변화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파급효과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생산 자재에 대한 수요의 변화이다. 농업생산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배면적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농업생산 자재의

수요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과 작부체계의 변화 등은 농업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자재의 수요변화를 품목별로 보면 농기계계의 경우 영농의 규모화와 집단화로 경운기, 바인더 등 소형 농기계계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반면 중대형 농기계인 트랙터, 콤파인 등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수, 채소 생산의 단지화에 따라 이들 작물에 대한 수확기와 부착작업기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는 지속적인 수도면적의 감소로 수도용비료의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도작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채소 등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염류장애의 해소를 위해 현 표준소비량의 하향조정이 요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비료소비의 감소가 예상된다.

농약은 비료와 같이 수도용의 소비는 감소가 예상되나 수도의 직파재배가 실시되면 제조체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영농의 규모화, 집단화로 중대형 농기계계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수, 원예용 농약의 소비는 식부면적의 증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농약도 환경오염 방지와 생산비절감의 측면에서 적정방제가 요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농약소비의 감소가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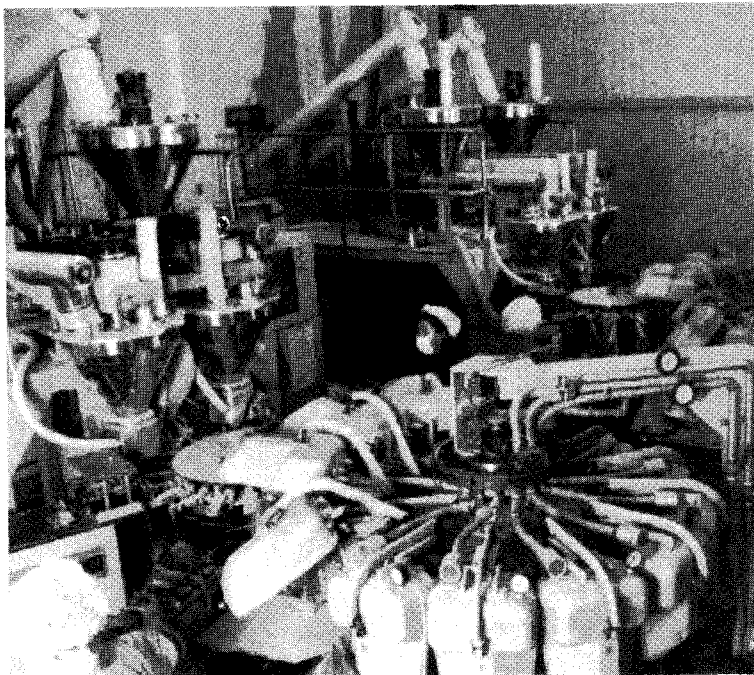
둘째, 수입개방에 따라 농업자재산업은 값싸고 양질의 자재를 공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가의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절감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현재 비료, 농약, 농기계계의 수입이 전면 또는 부분개방 되어 농업자재산업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비료는 UR 체결로 1995년 이

후 완전 수입개방이 예상되고 관세율도 일반관세율 8%에서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료의 유통도 1997년부터 자유화될 계획으로 있어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는 1995년이후 시장이 완전개방되고 수입농기계 관세의 영세율 적용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기업이 농기계 A/S 체제를 갖추고 국내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은 현재 완제품 수입이 개방되어 있으나 농약관리법에 의해 수입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시설기준등)이 강화되어 있어 사실



GR출범에 따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비료·농약산업은 원가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수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의 특허농약품목이 국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외국농약의 수입이 증대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국제경쟁시대에서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비료, 농약산업과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뒤지는 농기계산업은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UR체결에 따른 국내농

업 보조금의 감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농업자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UR협정에 의하면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성격의 보조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한 국고지원, 지력증진 등을 위한 토양개량제의 국고지원은 유지가 가능하나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직접보조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농기계지원정책은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며, 농약은 방역을 위

한 기술지도 또는 보급전과 명목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농업자재산업이 당면하게 될 또 다른 문제는 UR이후의 후속조치로서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출범에 따른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그린라운드에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탄산가스 방출억제, 탄소세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영세한 비료, 농약산업으로서는 원가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농자재업계의 대응방안

농업자재산업은 농업부문의 생산위축으로 인하여 장래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안보등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을 유지하고 대내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경영규모 확대 등의 생산구조 개선 및 경쟁력향상을 위한 유통시설의 지원 등 국내농업의 새로운 지원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업자재산업은 변화하는 농업시책과 국제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농업자재산업은 농업생산구조의 재편과 수도작 등의 신재배기술에 대응하여 새로운 농업자재를 개발 공급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의 경우 한국실정에 맞는 중대형 농기계의 개발공급이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비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사후봉사체제를 강화해서 농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비료의 경우 노력비 절감을 위한 완효성비료의 개발이 요구되며 농약은 수도작피재배에 따라 다양한 제초제의 개발과 환경오염에 관련하여 저독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농업자재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라 농업자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기계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연구개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농기계업체의 영세성으로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내농기계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업체별 기종생산의 전문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종생

산의 전문화는 외국업체와의 가격 및 품질경쟁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비료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료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농약산업도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농약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부터 완제품 농약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밀화학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자재산업의 경영합리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경영합리화는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개선과 경영의 다각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농업자재산업은 국내시장의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한 지금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이 시점에서 업종전환을 모색해야 하며 경쟁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경영개선을 통해 원가절감을

기해야 할 것이다.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비료와 농약산업은 관련제품의 개발생산 등으로 경영의 다각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산업은 기종별 생산전문화를 통해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농업자재산업은 수출산업으로 성장 발전해야 한다. 국내 농업자재산업이 한정된 국내시장에 의존하여 과당경쟁을 지속하면 더이상의 성장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외국기업의 국내잠식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종래와 같은 국내경쟁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제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관련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의 투자에 힘써야 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자재산업이 농업의 경쟁력제고의 밑거름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계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